



IT강국 위한 전략 진지하게 논의

“광대역통합망 기반 ‘아이토피아’ 건설에 함께 나서야” 정보통신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 ... 학계·연구계 관계자 70여명 참석

통신·방송 기술의 융합 시대를 맞아 국내 IT기술개발의 선두주자인 ETRI와 대표 통신사업자인 KT, 디지털방송의 선두주자인 SBS 등 각 기관 및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한 ‘IT강국 선도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49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 행사로 치러진 이번 토론회는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2일 서울프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글 / 신종훈 기자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가 주최한 이번 ‘IT강국 선도전략 토론회’는 ‘광대역 IT기반의 e-Korea 건설 : IT강국에서 ITopia로’라는 주제로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과 이용경 KT사장, 송도균 SBS사장 등이 차례로 주제발표를 하고, 이후 동일한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과의 자유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cN 구축에 2조원 투자

먼저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주환 ETRI 원장은 ‘유비쿼터스 환경의 BcN 구축 전략’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면서 “세계는 산업혁명 이후 200년간 50배의 생산성이 증대되는 변혁의 시대를 거치고 있다”며 “이러한 변혁의 핵심은 컴퓨터와 통신의 융합으로 이뤄진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정보혁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정보통신 기술은 유비쿼터스 환경의 실현을 향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해 광대역통합망

(BcN)을 조기에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대역통합망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로, 현재의 초고속망에 비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약 50배 빠른 광케이블을 이용한 통신망을 말한다. 임 원장은 이와 함께 “최근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면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투자의 중심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이동중이나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 및 망구축 효율을 위해 패킷 기반의 단일망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고품질 데이터 서비스 등 새로운 수익모델이 개발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임 원장은 마지막으로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기 위해 2010년까지 전달망 고도화, 가입자망 광대역화, 유비쿼터스 접속환경 구현 등 인프라 고도화와 융합서비스 기술, 장비 기술, 핵심부품



기술 등 기반기술 개발에 2조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2010년에는 BcN 생산 95조원, 수출 135억달러, 고용 37만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5A 가능한 ITopia 건설에 노력해야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용경 KT 사장은 ITopia 구현을 위한 인프라 진화 전략에서 "IT기술을 활용해 풍요로운 미래사회를 건설하고, IT산업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ITopia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며 "ITopia에서는 광통신과 무선 이동성을 기반으로 5A(Anitime, Anywhere, Any content, Any device, Any network)가 가능해 향상된 삶의 풍요로움을 모든 계층이 향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은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9대 신성장동력 추진 및 IT를 통한 분배정의 실현으로 ITopia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며 "ITopia의 구현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인력, 제도적 측면에서 균형된 국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KT는 초고속인프라 구축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듯이 ITopia 구현에서도 키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BcN을 비롯해 홈네트워크, 휴대인터넷 등의 신성장동력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ITopia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방송 융합, 전송방식 논란으로 시기 놓쳐 마지막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한 송도균 SBS 사장은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도입 전략'에서 "디지털 시대를 맞아 방송 부문도 많은 과정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디지털 방송이 전송방식 등의 논란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시기를 놓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올해 6월경에는 이러한 논란이 마

무리때 DMB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사장은 또 "현재 방송은 방송 제작 및 과정들에 있어서는 디지털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방송국 외부로의 전달하는 과정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기존 방송제작 및 송출 방식이 새로운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참석자들과 주제발표자들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마련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업계 종사자들보다는 대학 교수 등 학계 및 연구계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토론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진지하게 진행됐으며, 참석자들도 발표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질문을 통해 "방송사가 디지털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기존의 아날로그 제작 세대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 송도균 SBS 사장을 난처하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송 사장은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문제일 뿐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유연하게 답변했다.

한편, 자유토론에 참석한 박성득 전자신문사 사장은 "방송은 유선환경을, 통신은 무선환경을 맞는 큰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국 방송과 통신, 기반기술 등 모든 인프라가 하나로 합쳐질 것에 대비해 나라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방향을 잡으려는 노력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